

<동정자료>

손병석 차관, “건설사고 예방, 기관 간 긴밀한 협업 중요” 건설안전협의회 활동 실적 점검

-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22일 오후 2시 건설회관에서 민관 합동 ‘중앙 건설안전협의회’를 소집하여 회의를 주재했다.
 - 중앙 건설안전협의회는 올해 2월 건설사고 예방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발족한 민관 합동 협의체로서,
 - 회장인 손병석 국토부 제1차관을 비롯하여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 등 정부의 당연직 위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(LH) 등 국토부 산하 발주청 및 업체, 노동조합 및 학계 소속의 민간 위촉직 위원 등 총 23명으로 구성됐다.
- 본 회의에서는 각 ‘권역별 건설안전협의회*’ 회장을 맡고 있는 5개 지방국토청장이 차례로 금년 협의회 활동 실적을 보고하였다.
 - * 소관 지역 건설현장의 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수도권, 강원권, 충청권, 호남권, 영남권 등 5개의 「권역별 건설안전협의회」 발족(17. 1.)하여 운영 중
 - 이를 통해 건설 사업장 무재해 달성 운동, 찾아가는 건설안전 합동 컨설팅, 전문가 합동 고위험 현장* 점검, 안전문화 정착 캠페인 등 안전한 건설 현장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공유하였다.
- 손 차관은 “올해는 건설안전 협의체 발족 원년으로, 기대가 컸던 만큼 아쉬움도 큰 것이 사실”이라고 소회를 밝혔다.
 - 이어 “협의회가 사고예방에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지방국토청 자체의 노력도 중요하나 권역별 협의회에 소속된 다른 기관과의 협력 활동이 더 늘어나야 할 것이다.”라며

- “특히, 사고율이 높은 소규모 건축현장을 직접 관리하는 지자체의 활동이 매우 중요한 만큼 내년에는 지자체와 협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.”라고 강조했다.
- 마지막으로 “최근 타워크레인, 갈탄에 의한 질식, LP가스 누출 등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빈발하고 있는데 유사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현장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”을 당부했다.

2017. 12. 22.

국토교통부 대변인